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2020년 5월, 머스크 686척 선박 보유로 세계 1위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코로나19가 올해 1분기 영국 무역에 미친 영향
2. 미국 전자상거래,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8% 성장 예상
3. 월마트, 2019년에도 미국 컨테이너 수입화주업체 1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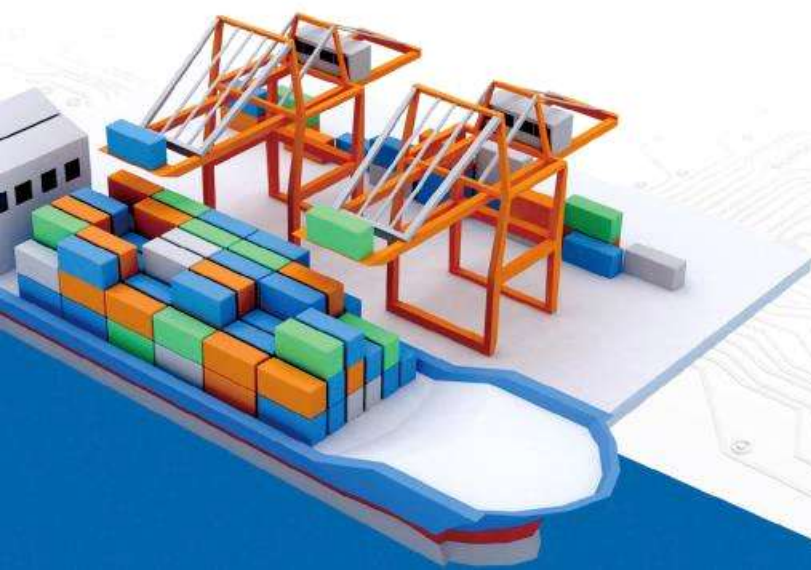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공지사항

- 2020 부산항 언택트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명사 스피치

“유럽에서 아시아로 해운산업의 헤게모니가 넘어오고 있고 싱가포르와 상해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 해운산업의 중심은 여전히 런던이다. 부산이 런던처럼 되고 싶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국내의 선사 유치다.”

양진호 대한상선 부사장
(2020. 6. 3 /한국해운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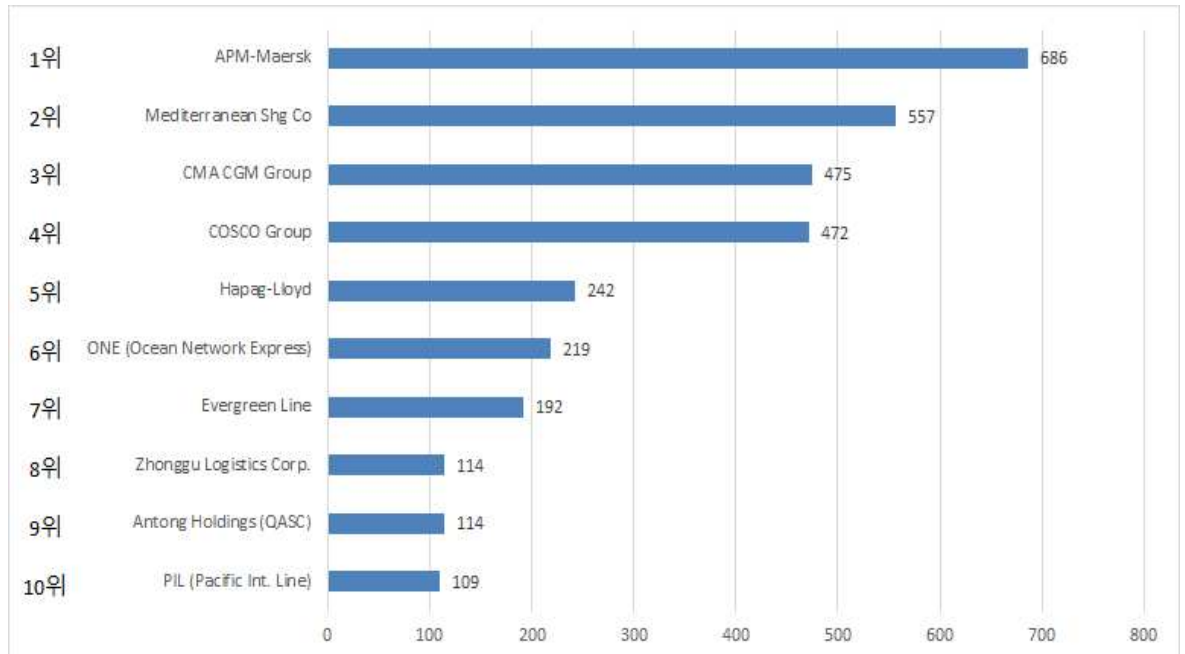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2020년 5월, 머스크 686척 선박 보유로 세계 1위

2020년 5월 기준 글로벌 선사 보유 선박 현황

(단위 : 척수)



자료 : www.statista.com

- 위 통계는 2020년 5월 4일 기준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순위를 나타냄
 - 자사 소유의 선박과 용선 수를 모두 포함하여 나타난 순위임
- Maersk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MSC, CMA CGM, COSCO, Hapag-Lloyd 순으로 선박을 보유하고 있음
 - 1위인 머스크(686척)와 2위 MSC(557척)는 129척 차이가 나며, 머스크가 월등히 앞서고 있음
 - 한편 4위 코스코(472척)와 5위 하파그로이드(242척)간 보유 선박 수도 큰 격차(230척)를 보임
-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기업인 Maersk는 현재 약 410만 TEU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운영할 수 있음

참고자료 : www.statista.com(검색일: 2020. 06. 04), www.alphaliner.com(검색일: 2020. 06. 04)

류진아 연구원

051-797-4788, jaryu@kmi.re.kr



코로나19가 올해 1분기 영국 무역에 미친 영향

- 영국항만협회(BPA)와 PCLP(Port Centric Logistics Partners Ltd.)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19(COVID-19)에 따른 영향이 특정 분야에서 감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영국의 올해 1분기 GDP(물동량 기준)는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2% 하락함
 - 올해 1분기 생산과 건설이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 소비가 1.7% 감소(2008년 4분기 이후 분기별 최대 감소)했으며 컨테이너 수입량 둔화 등 항만 물동량에 영향을 미침
- 항만은 직간접적으로 지역 고용을 유발하는 주체로서 특정 지역사회에 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국의 1분기 교통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하면서 영국 내 페리를 이용한 Ro-Ro화물도 9.5% 감소함
 - 여행 제한의 영향으로 1분기 여객선 수요는 영국~아일랜드 노선이 7.2% 감소했으며, 영국~유럽대륙 노선은 25.8% 감소함
- [식품 및 필수품 분야] 2020년 1분기 수입된 채소, 과일, 육류, 음료는 모두 감소했으나 항만에서 처리되는 타 품목에 비해 감소 폭은 적게 나타남
 - 석유·가스 수입에 이어 영국의 3번째 수입 품목인 채소와 과일은 2019년 1분기에 비해 5.8% 감소(석유·가스를 제외한 타 품목의 감소율은 15.8%)함
- [제조 분야] 2020년 1분기 수입된 채소, 과일, 육류, 음료는 모두 감소했으나 항만에서 처리되는 타 품목에 비해 감소폭은 적게 나타남
 - 영국의 자동차 생산은 코로나19로 공장 폐쇄를 강행하면서 4월에 99.7% 감소해 생산 대수는 고작 197대에 그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생산량을 기록함(누적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6% 감소)
 - 1분기 비EU 국가에 대한 상품 수출 감소는 기계, 운송장비, 잡화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비EU 국가로부터의 수입 감소는 연료, 잡화, 기계, 운송 장비 부문에서 주로 발생함
- [건설 분야] 건설 및 인프라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 상당량은 항만을 통해 수입되며 건설은 2020년 3월 전월대비 5.9% 감소(신규공사 -6.2%, 유지·보수 -5.1%)하면서 해당분야 실적을 기록한 2010년 이래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임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건설 활동 중단 및 감소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스코틀랜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던 스코틀랜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영국항만협회가 지난 5월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계획된 항만건설 사업의 64%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15%는 지연, 8%는 완전히 취소됨(13%만 정상 진행됨)
- [에너지 분야] 영국 무역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분야는 인구 이동의 감소로 1분기에 원유 지역 생산량의 5.4% 감소함(노동력 10~23%의 손실 발생 예상)



- 1분기 석탄 수입량은 계속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110만 톤을 기록함
- 해상 풍력 관련, 코로나19 발생 전 영국의 연간 설비량은 1.22GW로 추정되나 코로나19 발생 후, 수요의 감소, 봉쇄조치, 공급망 문제 및 유지·보수 등으로 연간 설비량이 980MW로 감소함
- [수산업 분야] 수산업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소매점 폐쇄가 수요에 영향을 미쳐 수산물 가격이 하락했으며 항만 수익이 감소함

■ 참고자료 : www.drycargomag.com(검색일: 202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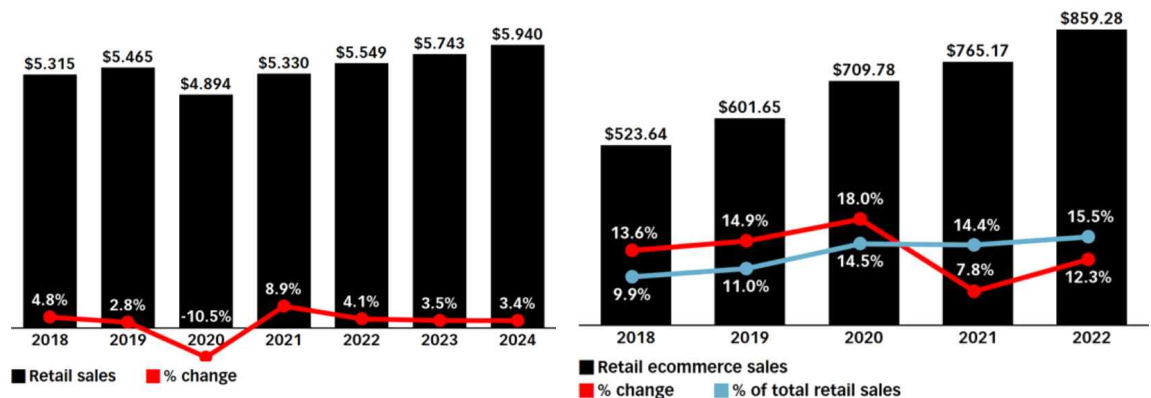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미국 전자상거래,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8% 성장 예상

-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올해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임
 - 하지만 이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미국 전체 소비시장이 입을 타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분석됨

2018~2024년 미국 전체 소비시장 및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자료 : <https://techcrunch.com/2020/05/05/xiaomi-mi-commerce-india/2020/05/05/xiaomi-mi-commerce-india/>

- 자동차, 연료 등을 포함한 미국 전체 소비 시장의 규모는 올해 1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2016년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수치이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때의 하락세(8.2%)보다 더 심각한 수준임
 - 지난 3월을 기점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며, 2022년까지도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오프라인 시장의 규모는 올해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최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온라인 시장은 식료품 및 음료(58.5%), 건강식품(32.4%) 등을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온라인 시장 내에서도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의류 및 액세서리 분야는 올해 8.6%의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재택근무의 증가와 더불어 필수품 외에는 불필요한 구매를 지양하는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참고자료 : www.techcrunch.com(검색일: 2020.6.8), www.cnn.com(검색일: 2020.6.8)

신수용 부연구위원

051-797-4780, shinsy@kmi.re.kr

월마트, 2019년에도 미국 컨테이너 수입화주업체 1위 유지

- 미국의 해운전문지 JOC(Journal of Commerce)는 최근 PIER(S(미국 세관통계)를 바탕으로 2019년 미국 컨테이너 수입화주업체 순위를 발표했다
 - JOC 통계는 실제 화주(BCO)를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비선박 해상운송자(NVOCC), 포워더, 3PL(3자 물류) 등의 업체는 포함되지 않음¹⁾
 - 유통업 부문이 상위 5위까지 차지하며 수입화주업체의 컨테이너 수입 화물량(TEU 기준, 이하 화물량) 순위 구조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업체 대부분의 화물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음(아래 표 참조)
 - 화물량 감소의 주요 요인은 미국의 경기하락,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됨
-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전년에 이어 2019년 컨테이너 수입화주업체 순위 1위를 차지했으나, 화물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했음

2019년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화주 상위 20개 업체

순위	수입 화주업체 명	화물량(TEU)	전년 대비 증가율	업종
1	Walmart	893,390	-5.0%	유통
2	Target	600,040	-5.0%	유통
3	Home Depot	417,100	0.0%	유통
4	Lowe's	292,244	-5.0%	유통
5	Ashley Furniture Industries, Inc.	270,000	35.0%	가구
6	Dole Food	230,117	-2.3%	청과물
7	Samsung America	181,328	-4.6%	대기업 ²⁾
8	Family Dollar Stores/Dollar Tree	171,936	-5.0%	유통
9	LG Group	156,348	-10.0%	대기업
10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151,589	14.5%	청과물
11	IKEA International	131,684	-7.8%	유통
12	Nike	118,219	-5.1%	신발·의류
13	J.C. Penney	76,836	-29.3%	유통
14	Red Bull North America	70,700	11.1%	음료
15	Hyundai Motor Manufacturing	65,014	153.7%	자동차부품
16	Fresh Del Monte Produce	52,388	0.0%	식품
17	Mercedes Benz USA/Daimler Trucks	50,515	-16.3%	자동차부품
18	Sumitomo	48,661	-61.0%	대기업
19	Hankook Tire America	48,090	-5.2%	타이어
20	Toyota Tsusho America	46,138	-2.9%	대기업

자료 : marinavi.com, joc.com을 참고로 정리

- 월마트, 타깃, 홈디포, 로우즈 등 상위 4개 업체³⁾는 2018년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음
- 2018년에 6위였던 에슬리가구는 화물량이 전년 대비 35.0% 증가하며 돌푸드를 제치고 5위로 한 단계

1) 실제 화주(BCO, Beneficial Cargo Owner)란 비선박 해상운송자(NVOCC, Non-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를 거치지 않고 선사와 직접 계약하여 운송하는 제조업체, 유통업자 등의 대형 화주를 말함
 2) 업종 구분의 '대기업'은 'conglomerate(여러 기업이 하나로 연합된 거대 복합 기업)'의 의미로 사용함
 3) 월마트, 타깃은 종합 유통업체, 홈디포는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도구 유통업체, 로우즈는 가전 유통업체임



순위가 상승했음

- 수입화주 상위 20개 업체 중 유통, 가구, 식품 등 소비재 부문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 (Samsung America), LG그룹이 각각 7위, 9위로 상위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음(순위는 전년 동일)
 -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9년 화물량이 전년의 2.5배 수준으로 급증하며(전년 대비 153.7% 증가) 순위도 전년의 60위에서 15위로 크게 상승했음
 - 그 외, 한국타이어는 화물량이 전년 대비 5.2% 감소했으나, 순위는 전년의 30위에서 19위로 대폭 상승했음
- 미국의 전자상거래 부문 최대 업체인 아마존의 2019년 화물량은 3만4,779TEU로 전년 대비 72.9% 감소하며 순위도 전년 13위에서 27위로 급락했음
 - 이러한 배경에는 아마존 물류 수단의 항공 시프트, 외부 물류업체 이용량 증가에 따른 자사물류 감소 등의 요인이 잠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됨
 - 그 외, 상위 20위권에 진입한 일본계 수입화주업체로는 스미토모상사가 18위로 최고 순위이며, 도요타 통상이 20위에 위치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marinavi.com(검색일: 2020.6.4.), www.joc.com(검색일: 2020.6.4.)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2020 부산항 언택트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 부산항 언택트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개 요

- 사업기간: 2020. 6. ~ 2020. 11.
- 주관기관: 부산항만공사
- 수행기관: 부산상공회의소(통상진흥본부)
- 지원규모: 개별지원사업 상세참조
- 지원한도: 세부사업 중복신청가능, 기업당 8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부산항 이용실적이 있는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
- 신청기한: 2020. 6. 8.(월) ~ 2020. 6. 19.(금)
- 문 의 처: 부산상공회의소 장우현 주임(051-990-7085, whjang@korcham.net)
부산항만공사 이하림 대리(051-999-8585)

□ 개별지원사업

구 분		지원내용
수출준비단계	홍보 카탈로그 및 영상물, 홍보물 제작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홈페이지, 모바일 앱, 홍보 동영상 제작비 (최대 400만원 한도, 5개사)
	수출전담인력 개발 교육	무역실무, 수출입 관련 자격증 획득 온/오프라인 교육 및 응시료 (최대 100만원 한도, 5개사)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2020 연중 코트라, 중진공, 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지원 (최대 325만원 한도, 2개사)
바이어발굴단계	해외바이어 발굴 온라인마케팅	해외시장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조사비용 검색엔진 마케팅, 해외 민간 네트워크 등록비용 (최대 400만원 한도, 4개사)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해외바이어 신용조사비 (최대 50만원 한도, 5개사)
	FTA 컨설팅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FTA 컨설팅 비용,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 2개사)

계약진행단계	통·번역	번역: 수출관련 무역서신, 수출계약서 등 통역: 화상으로 진행되는 바이어 상담, 바이어 미팅 등 (최대 100만원 한도, 4개사)
	물류비	샘플 송부 비용 또는 계약 체결 후 수출 건 물류비 해상 및 항공운임, 창고 보관료 및 작업료, 내륙운송료, 견본물품 운송료 등 (최대 200만원 한도, 6개사)
	법률, 회계, 특허 자문 지원	법률, 회계, 특허 자문 컨설팅비 수출시 전문가를 활용한 계약서, 진출국가 법령검토, 해석,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자문 컨설팅비 (최대 100만원 한도, 2개사)

□ 참가신청

- 신청기한: 2020. 6. 8.(월) ~ 2020. 6. 19.(금)
- 신청대상: 부산항 이용실적이 있는 부산·경남지역 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용역업체를 자율선정하여 계약체결 후 홍보물을 제작함
 - 사업완료시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 사업기간 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첨부양식)
 - 사업계획서 1부(첨부양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증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http://www.4insure.or.kr>)에서 발급
 - 전년도 부산항이용실적증명서 1부(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trass.or.kr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
(담당자 : 신지원 연구원, 02-2140-0733)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 신청방법: 이메일(whjang@korcham.net) 접수 후 확인전화
-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 장우현 주임(051-990-7085, whjang@korcham.net)
 - 부산항만공사 사회적가치·혁신실 이하림 대리(051-999-8585)